

우간다 선교사 가정 소식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황무한 땅, 불모지 우간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과 기도의 소식을 전합니다.

2026년 6월 27일

우간다에서

요한복음 17장 암송 — 예수님의 기도

지난 몇 주간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아이들과 함께 암송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위해 중보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나를 넘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삶의 귀함을 한 달 내내 나누었습니다.

암송 완주

26절 전체를 10여 명의 아이들이 모두 완주하였습니다.

중보기도의 삶

자신이 아닌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소망과 기도

암송한 말씀이 속사람을 변화시켜, 이 아이들이 우간다의 미래요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건기의 어려움 –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

한 달째 비소식이 없습니다. 물 부족으로 씻지도 빨래도 할 수 없어 도서관은 온갖 냄새로 가득하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말씀 암송 소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떠 오르게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 충분한 물 공급
- 위생적인 환경 조성
-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 기본 필요가 채워지는 날

토요일 오후 — 예배와 나눔의 시간

토요일 오후,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빵과 음료를 나눕니다. 그 작은 나눔 속에서 예수님의 성찬을 떠올립니다.



독후활동

Martin Luther King의 'I have a dream'을 함께 읽고 꿈에 대해 나눕니다.



예배

오후 1:30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눔

허기진 아이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누며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음푸무데 초등학교 — 하드웨어와 마음

✓ 갖춰진 것들

하드웨어는 잘 갖추어졌습니다. 이웃들도 웬만한 사립학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생님들이 변화되고, 교사와 학생과 부모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 여전히 필요한 것들

교사가 부족하고, 아이들을 향한 마음과 열심도 아직 부족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말씀 암송

요한복음 17장 26절, 10여 명의 아이들이 완주

건기 기도

물과 위생 환경, 기본 필요 채워지기를

학교 사역

교사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2026년 6월, 우간다에서